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 실시와 베트남 내 교육기관의 대응

Prof. Cho Hang Rok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Abstract

Recently, Korean Government requires the marriage immigrants who got married to Korean citizens to equip basic knowledge when they obtain Immigrant Spouse Visas. The above mentioned basic knowledge refers the command of Korean language and the comprehension of Korean custom. And the evaluation of it i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of Korea.

Korean government implements this policy because the marriage immigrants could experience matrimonial difficulties and also could be vulnerable members in Korean society if they don't know Korean language and custom.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Level 1 is the required level of command of Korean Language when a marriage immigrant obtains the Immigrant Spouse Visa. That is the level which is necessary for the basic communication with Koreans.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a marriage immigrant must submit either the certificate of TOPIK equivalent to Level 1 or higher or the certificate demonstrating the completion of a basic level of Korean language course in an education institute designated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But it is not easy to take the TOPIK or to take a course at an education institute designated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a foreign country. Therefore, an interview can b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applicant's command of Korean language, if he/she wants it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The test which is implemented at this process is the Test of Basic Knowledge for Marriage Immigrants to obtain the Immigrant Spouse Visa.

Vocabulary, grammar and discourse comprehension are evaluated in the test. The test has 25 problems; Five for vocabulary, five for grammar, and fifteen for discourse comprehension. A marriage immigrant should gain more than 60 points to obtain the Immigrant Spouse Visa.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ystem will provoke chang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Vietnam because there ar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n that area. Therefor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in Vietnam need to prepare for the system. Fortunately, an obvious effect of education is expected, as marriage immigrants have strong motivations. And, since the details of the evaluation are announced, it is eas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It could be recommended that the education institutes in Vietnam develop programs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sample tests. This will help them enhance the capability of Korean of their student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 in Vietnam.

1. 들어가기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현지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 소양이라 함은 한국의 국적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능력을 의미한다. 기본 소양에 대한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적법 시행령과 국적법 시행규칙 등에서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외국인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는 원래 일반귀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한국 내 체류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한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 중의 하나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반귀화가 아닌 간이귀화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한국 입국 전에 일정 수준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 받게 되는데 몇몇 이유로 입국 전에도 기본 소양의 일부를 갖추도록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결혼이민자에게 입국 전에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한국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면 원만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부부 사이에 언어와 문화 문제로 원만한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사회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 중매가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 사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은 대체로 초급 수준의 한국어능력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기본 소양이라고 하면 한국어와 한국 풍습으로 구성되고 한국 풍습은 몇몇 하위 분야로 세분화되는데 결혼이민자의 사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어 능력에 국한하는 듯하다. 즉 기본 소양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제요건에서 한국어만이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가 국민배우자 사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인증서 또는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등)에서 초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증명하는 이수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 국적 한국동포,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자,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기록 등이 있으면 이러한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 입국 사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을 획득하였거나 세종학당 등에서 초급 과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국외에서의 연간 시행 횟수가 한정되어 있고, 응시한다 해도 1급 인증을 획득하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세종학당 지정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여기에도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등록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등록하여 수강했다 하여도 85% 이상 출석해야 하고 수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의 기회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하여 좀 더 편리하게 기본 소양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현지 기본 소양 평가 제도의 실시이다. 흔히 입국 전 현지 기본 소양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시험은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주어 마련한 것으로 대체로 평가의 목표와 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많은 만큼 구술시험과 필기시험 중 하나에 응시하도록 하는데 그 평가 수준 역시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이는 2013년 10월 10일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시한 포괄적인 의미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시험의 구성 체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평가 실시의 의의와 현지 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베트남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구술시험과 관련해서는 대상 자료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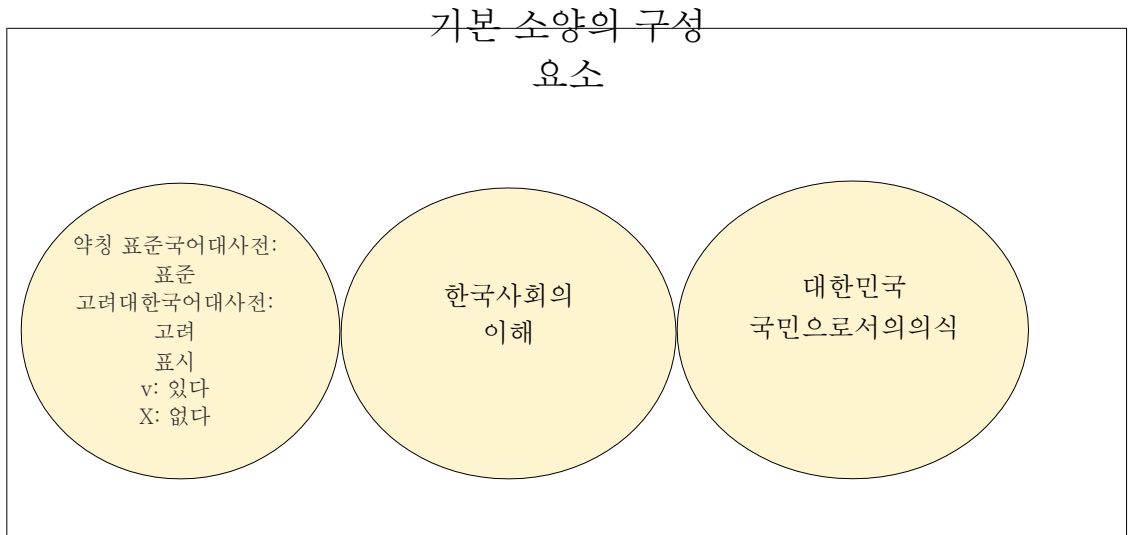
한
다.

2. 입국 전 현지 기본 소양 평가의 구성 체계 분석

결혼이민자의 입국 사증 취득과 관련이 있는 기본 소양에 대한 법규 중 평가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규정은 우선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사증 취득과 관련한 기본 소양 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2호의 역사, 정치, 문화, 국어 및 풍습이라는 5개 영역이 귀화필기시험의 평가 영역으로 설정되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4호의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기본 신념이 면접심사의 심사 내용이 된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은 크게 국어 능력, 역사·정치·문화·풍습과 같은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 신념과 같은 국민 의식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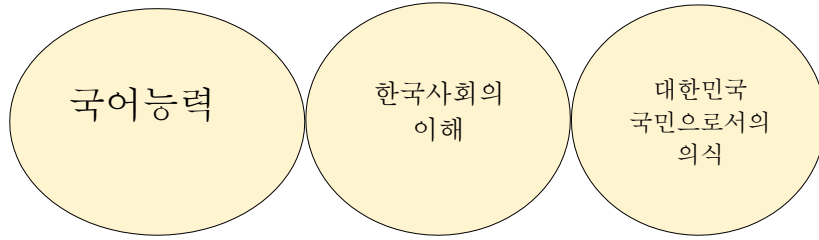
<그림 1>기본 소양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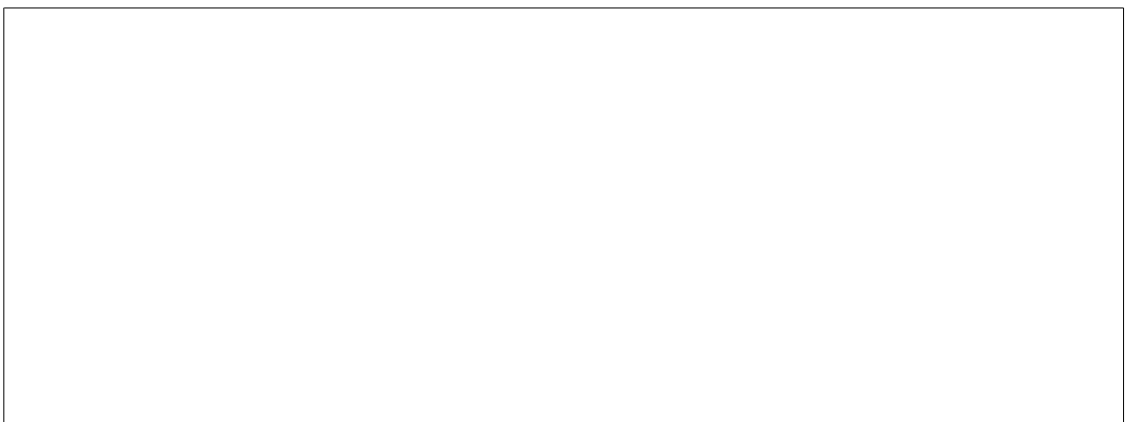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기본 소양에 대한 평가는 귀화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각각의 기본 소양에 대한 평가 방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2>기본 소양에 대한 평가

기본 소양에 대한 평가



결혼 이민자가 많은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 공지된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의 예시 문제를 보면 입국 전 기본 소양 시험은 모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문항의 수는 7개이며 각각의 대문항 안에 소문항이 각각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항 1번~3번은 소문항이 5개씩이며 4번은 소문항이 4개, 5~7번은 각각 소문항이

2개씩이다. 예시문제를 바탕으로 각각의 대문항별 평가 목표와 질문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 문항

대문항	분석 내용
대문항 1번	간단한 대화 상황에서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질문 유형은 그림을 보고
대문항 2번 (소문항 2개)	간단한 대화 상황에서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질문 유형은 대화 상황에서 질문에 맞는 대답을 고르기이다. 여기에서는 시각 자료가
대문항 3번 (소문항 11~15번)	담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짧은 서술문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질문 유형은 지문을 읽고 맞는 답 고르기이다. 대체로 지문 내 문장의 수는 2개에서 4개이며 뒤 문항으로 갈수록 문장 내 어절의
대문항 4번 (소문항 4개)	담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단한 서술문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질문 유형은 지문을 읽고 맞는 답 고르기이다. 지문은 대체로
대문항 5번 (소문항 5개)	담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긴 서술문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질문 유형은()채우기와 맞는 답 고르기이다.
	1지문 2문항 문제로서 지문은 7문장으로 구성되어

<p>대문항 6번 (소문 항 22번~23</p>	<p>담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용문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질문 유형은()채우기와 맞는 답 고르기이다. 1지문 2문항 문제로서 지문의 유형은 실용문이며 예시문제에서는 이메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p>
<p>대문항 7번 (소문 항 24번~25</p>	<p>담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용문을 읽고 세부 내용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질문 유형은()채우기와 맞는 답 고르기이다. 1지문 2문항 문제로 지문의 유형은 실용문으로서 예시문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p>

예시 문제만으로 볼 때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시험의 평가 목표는 한국어능력시험 I (TOPIK I)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평가의 하위 영역은 읽기와 어휘, 문법의 통합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문항 역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외견상으로는 경량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어능력시험 I (TOPIK I)이

1급과 2급을 인증한다는 점에서 보면 1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험이 경량화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숙달도 시험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재/주제, 내용/맥락의 측면에서 특수 목적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격도 일부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급1, 즉 1급의 경우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어능력시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시험은 결혼이민자가 많은 나라의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는데 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2>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시험
개요

시험의 명칭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시험의 유형 (목적별)	기본 소양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숙달도 시험
평가 영역	어휘/문법/읽기
문항 수	25문

문항 유형	객관
시험 시간	50
총 점	100
등급 인정 점수	60점 이상 합격 인정

한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양 시험은 필기시험 이외에도 구술시험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지역에 국한한 경우로 신청자가 많아 필기시험으로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실시하기 전에 구술시험으로 평가를 진행했던 상황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다. 일부 공관에 공지되어 있는 기본 소양 평가 안내문을 볼 때 구술시험의 평가 목표는 생존에 필요한 언어기능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소개, 음식, 날씨, 취미, 일상생활, 과거활동 등이 주된 소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모두 16개의 질문이 부과되고 이 중에서 12개 이상의 대답이 적절했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시험은 부분적으로 이원화되었지만 실제에 있어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필기시험의 평가 목표와 평가 영역 등은 일반적인 숙달도 평가의 초급1 수준으로서 세종학당 등 지정 교육기관의 초급1 교육 수료, 한국어능력시험 I (TOPIK I)의 1급 인증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입국 전 현지 기본 소양 평가 실시의 의의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시험의 시행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배우자 사증 발급 제도가 강화되면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아예 못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 보완의 성격을 갖는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을 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 배우자의 신분을 갖는다. 그리고 종래에는 이 신분으로 체류 기간 1년의 국민 배우자 사증을 취득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혼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지속 되어도 한국 생활에의 적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불행이며 국가로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엔 이러한 상황은 자녀 교육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결혼 당사자의 행복은 물론 한국 사회의 다원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은 한국 정부에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능력 입증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위에서 언급한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결혼 당사자의 행복권 제약 등 부정적 현상도 피할 수 없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의 한국어 교육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도 사증 신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시험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 대상자를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성을 갖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 실시가 갖는 또 다른 의의로는 한국 정부의 이민자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한국 정부는 결혼이민자 등 정주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과 기존의 국민과의 유리를 방지하고 문화적 다양성 등을 키울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통합 정책의 추진은 종래에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구미 주요 국가에서는 입국 전부터 외국인이 사회통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상두 (2012)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의 주요 국가는 입국 전에 언어와 사회 이해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자와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 배우자 사증을 취득하기 전에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기본 소양이라는 것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 능력으로서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적 적응 능력이다. 그리고 이는 곧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한 대안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 이후에 국민 배우자 사증 신청이 2014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월평균 598건에 불과하여 2013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 1309건의 45.6%에 불과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국민배우자 사증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어 학습 등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를 갖는다. 입국이 늦어지면서 큰 고충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갖추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자 당사자에게 그 효과가 환원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의 시행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중개업자로 인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의 시행은 이러한 소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도록 한다.

4.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와 관련한 교육기관의 대응 방안 베트남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다면 결혼이민자가 제일

많은 국가이다.

<표 3> 2015년 국적별 . 성별 현황

(2015.1.31. 현재, 단위 : 명)

구분	타이	몽골	기타	필리핀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국적	150,798	60,412	24,427	39,702	12,657	11,062	4,589	2,678
전체	2,379	17,319						
	(100%)	(40.1%)	(26.3%)	(8.4%)	(7.3%)	(3.0%)	(1.8%)	(1.6%)
여자	127,953	48,360	17,014	39,048	11,434	10,744	4,572	2,608
	(84.9%)	2,298	8,889					
남자	22,845	12,052	7,413	654	1,223	318	17	70
	(15.1%)	81	8,430					

따라서 한국 정부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의 시행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미 국민배우자 사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능력 인증이 1차적으로는 현지 지정 교육기관의 초급 수료증서의 취득이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취득인 만큼 현지 지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결혼이민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일시에 학습 수요가 몰리면서 현지의 세종학당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 교육기관의 대부분인 세종학당은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혼이민자를 즉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가 시행되었다 해도 이에 맞춘 프로그램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세종학당 등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 공급 규모에 한계가 있고 교육 확대의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학습 대상자의 학습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의 시행은 세종학당 이외의 현지 대학 및 사설 교육기관 등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현지의 대학 및 사설 교육기관은 이제 새로운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그 목표가 분명하고 대상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게다가 이상적으로 본다면 학습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의 학습 동기는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지 모르는 한국에서 밝은 미래를 기약하게 해 주는 한국어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내적 동기를 확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1차적으로 한국 입국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외적 보상이 함께 주어지는 만큼 학습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학습자 동기의 지속은 상당 부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도 관련을 가질 것이다. 학습자의 참여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분명히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보장된다면 현지 대학 및 사설 교육기관으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모여들 것이다.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학습자 집단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학습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육기관에의 학습자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다.

어느 면에서 볼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의 대학 및 사설 교육기관의 학습자 집단은 비정형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은 학습자 집단의 규모도 크지 않고 학습자 집단의 학습 목적 등이 다양하여 목표 지향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학

내 한국 유학 예비과정은 교육의 목표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즉 학습 참가자가 학습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 유학 사증을 취득하는 순간에 학습 참여는 중단된다. 그런데 학습 참가자의 한국 유학 사증 취득은 유학 대비과정의 학습 참가 기간과는 무관하다. 참가해서 일정 기간 학습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학 사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으로서도 교육 목표 설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정형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교육 목표가 분명하고 교육과정의 개발도 수월하다. 이미 예시 문제가 공지되어 있는 만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베트남 내 대학 사설 교육기관은 현재 공지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양 평가의 예시문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일부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항 분석을 시도하여 역으로 교육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갖는

환류효과 (wash back effect)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이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에 대응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한때 교육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는 문제은행이면서 전체 문제를 공개한 EPS-TOPIK의 시행 체계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상업성을 많이 띠었다는 데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이와는 달리 출발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었다. 양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EPS-TOPIK 응시자들이 외적 동기만을 중시하거나 최소한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가 큰 것에 비하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양 평가는 내적 동기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내 대학 및 사설 교육기관의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권 2호,

한국정치학
회.

이미혜 (2014),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한국어능력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언어와 문화 제10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조항록 (2011),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제도의 검토와 개선방안”, 나라사랑 제120호.

외솔
회.

조항록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제50호, 이중언어학회.

조항록 (2015),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입국 사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능력평가체계 연구”, 언어와 문화 제11권 1호 투고 논문 (게재 확정), 한국언어문화학회.

조항록 외 (20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 연구”,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연구 보고서.

조항록 외 (2011).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연구 보고서.

조항록 외 (2012a),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선과 평가체계 구축 연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연구보고서.

조항록 외 (2012b), “한국 귀화시험의 한국어·한국문화 능력의 평가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 교육 Vol. 23 No. 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 외 (2013a), “한국어능력시험 체제 개편에 따른 평가틀 제작 및 표준문항 개발연구

보고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조항록 외 (2013b), “결혼이민자 기본 소양 실태 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연구보고서.

차용호 (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이민학회
2008년 후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부록 1>

지정 교육기관의 평가 탈락자에 대한 한국어 평가 실시 안내

세종학당 등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는 참여하였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1 평가대상

○ 결혼이민 (F-6) 비자신청 예정자 중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출석률은 충족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한 외국인

예) 세종학당에서 80% 이상 출석하였으나, 최종 수료평가에서 탈락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베트남 북부지역은 4개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하노이1, 하노이2,

타이응우옌)으로부터 탈락자 명단을 받을 예정임

2 신청절차

○ 대상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대사관에 결혼이민 비자발급을 신청

3 평가방법

○ 재외공관의 현지 여건과 사정에 따라 구술 평가 또는 필기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주 베트남 대사관은 비자 인터뷰 시 개별적으로 구술평가 실시

구분	구술 평가	필기
시험수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기능 구사 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초급 1급 수준
평가영	자기소개, 음식, 날씨, 취미, 일상생활,	기초적인 기본 소양 측정 * 시험문제 샘플 참조
합격기	16개의 질문 중 12개 이상 (70% 이상) 올바른 답변을 한 경우 합격	읽고 풀기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의 1문제당 4점씩 배점하여 총 100점

4 유의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한국어 평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만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5 시행일

○ '14. 11. 24. (월)

<부록 2>

[공개용 : SAMPLE]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 초 소 양 평 가 시 험

2014년
제0차
(2014.
11.)

	수험번호	
이름	한국명	
	영문명	

유 의 사
항

(현지어
번역)

1. 시험 시작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현지어 번역)
2. 필기구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사인펜
(연필종류는 제외)을 사용하십시오. (현지어 번역)
3. 문제지에 접수번호와 이름은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현지어 번역)
4. 답안은 문제지에 정확히 표시 (●, √)하여 주시고 2개 이상
표시한 경우 오답 처리 됩니다. (현지어 번역)
5. 시험이 끝나면 답안을 표시한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지어 번역)
6. 시험이 일찍 끝나도 종료 신호가 울릴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어 번역)
7. 질문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현지어 번역)

※[1-5] <보기>와 같이 옆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
기>

가: 무엇을 해요?

나:..

① 공부를 해요

② 운동을 해요

③ 밥을 먹어요

④ 친구를 만나요.



1.()

가: 무엇을 먹어요?

나:..

① 밥을 먹어요

② 빵을 먹어요

③ 김치를 먹어요

④ 과일을 먹어요



2.()

가: 어디에 있어요?

나:..

① 방에 있어요

② 밖에 있어요

③ 식당에 있어요

④ 교실에 있어요



3.()

가: 무엇을 해요?

나:..

- ① 잠을 자요
- ② 운동을 해요
- ③ 책을 읽어요
- ④ 커피를 마셔요



4.()

가: 이 옷이 얼마예요?

나:..

- ① 이백 오십 원이에요
- ② 이천 오백 원이에요
- ③ 이만 오천 원이에요
- ④ 이십 오만 원이에요



5.()

가: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나:..

- ① 책상 뒤에 있어요
- ② 책상 앞에 있어요
- ③ 책상 옆에 있어요
- ④ 책상 위에 있어요



※[6-10] 보기와 같이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
기>

가: 누구를 만나셨어요?

나: .

① 어제 만났어요 ② 두 명 만났어요

③ 친구를 만났어요 ④ 학교에서 만났어요

6.()

가: 어디에 갔어요?

나: .

① 어제 갔어요

② 시장에 갔어요

③ 친구하고 갔어요

④ 버스로 갔어요

7.()

가: 이 바지 얼마예요?

나: .

① 만 오천 원이에요

② 바지가 작아요

③ 내일 입을 거예요

④ 백화점에서 샀어요

8.()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

① 내일이 주말이에요

② 주말에 바쁘지 않아요

③ 주말에 극장에 갔어요

④ 주말에 여행할 거예요

9.()

가: 시간이 없는데 택시를 탈까요?

나: .

① 네, 택시를 탑니다

② 네, 택시를 탑시다

③ 네, 택시를 탈 거예요

④ 네, 택시를 탔습니다

10.()

가: 숙제를 하셨어요?

나: .

① 시간이 없고 못 했어요

② 시간이 없지만 못 했어요

③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④ 시간이 없으려고 못 했어요

※[11-15]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
기>

답습니다. 비도 옵니다.

① 날씨 ② 공부 ③ 나이 ④ 나라

11.()

학교에서 한국말을 공부합니다.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가족 ④ 친구

12.()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김치도 좋아합니다.

① 쇼핑 ② 주말 ③ 음식 ④ 청소

13.()

호영 씨와 왕웨이 씨는 친구입니다. 호영 씨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왕웨이 씨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① 여행 ② 나라 ③ 나이 ④ 가족

14.()

루이엔 씨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입니다.
마리 씨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선생님입니다.

- ① 옷 ② 직업 ③ 병원 ④ 학교

15.()

오늘부터 남편이 휴가입니다. 저와 남편은 제주도에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구경을 많이 할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겁니다.

- ① 결혼 ② 회사 ③ 여행 ④ 건강

※[16-19]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6.()

저는 3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살기가 좋습니다. 내년엔 남편과 함께 고향에 갈 겁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 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② 저는 남편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③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④ 저는 내년엔 혼자 고향에 갈 겁니다.

17.()

오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 ① 저는 친구를 자주 만납니다.
② 저는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③ 저는 친구와 같이 공원에 갔습니다.
④ 저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18.()

바트 씨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바트 씨는 날마다 집에서

한국 음식을 요리합니다. 바트 씨는 김치찌개를 자주 요리합니다.
바트 씨 남편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습니다.

- ① 바트 씨 남편은 한국 음식을 잘 요리합니다.
- ② 바트 씨는 김치찌개를 요리할 수 없습니다.
- ③ 바트 씨 남편은 바트 씨가 만든 음식을 잘 먹습니다.
- ④ 바트 씨 남편은 날마다 김치찌개를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19.(
)

호영 씨는 오늘 우체국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동생 생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샀습니다. 동생이 옷을 받으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 ① 호영 씨는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 ② 호영 씨는 오늘 백화점에 갈 것입니다.
- ③ 다음 주 수요일은 호영 씨 생일입니다.
- ④ 호영 씨는 동생에게 옷을 보낼 것입니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추운()이 가고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합니다. 저는 봄이 오면 남편, 아이와 같이 산에 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20.()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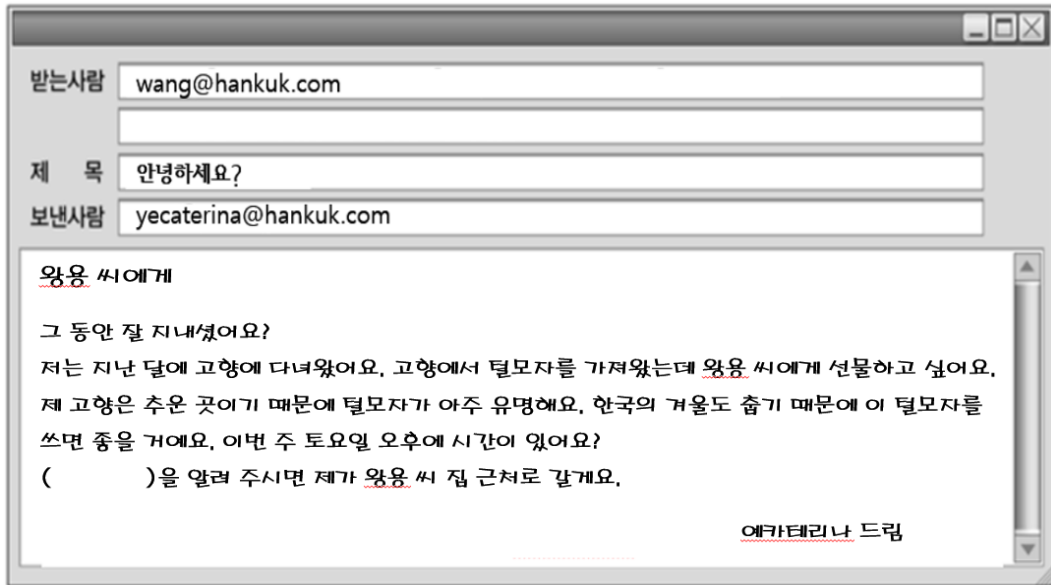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21.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저는 봄과 겨울을 좋아합니다.
- ② 저는 봄이 오면 부모님과 같이 산에 갑니다.
- ③ 저는 봄에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냅니다.
- ④ 저는 봄이 오면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갑니다. [22-23]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22.()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고향에 갈 시간
- ② 만날 수 있는 시간
- ③ 고향에서 지낼 시간
- ④ 털모자를 사러 갈 시간

23.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왕용 씨는 예카테리나 씨 고향에 가고 싶어합니다.
- ② 왕용 씨와 예카테리나 씨는 지난주에 고향에 갔습니다.
- ③ 예카테리나 씨는 왕용 씨에게 털모자를 선물할 것입니다.
- ④ 왕용 씨는 예카테리나 씨를 만나서 털모자를

살 것입니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습니까?

결혼이민자 여러분,
 00동 주민자치센터가 한국 노래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국 노래 교실에서
 한국 노래를 재미있게 배우십시오

◆ 언제 : 2014년 11월 1일 ~ 12월 31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 : 주민자치센터 노래연습실

*노래 교실은 무료입니다.
 *한국 친구와 같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00동 주민자치센터

24.()에 들어갈 말을 고르십시오.

- ① 누가
- ② 무엇을
- ③ 어떻게
- ④ 어디에서

25.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결혼이민자가 노래를 배웁니다.
- ② 노래를 배울 때 돈을 조금 냅니다.
- ③ 주말마다 노래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 ④ 1년 동안 한국 노래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